

#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2野 공조로 탄력

### 이상호·박지원 회동 합의...법조인·국회의원·차관급 포함 이달내 법안 발의 다음달 처리 방침...輿에 공동발의 제안

야권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공수처 신설법 추진에 공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 입법과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야당은 특히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양당의 당론으로 공동발의,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공수처 신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이후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들이 공약으

로 제시했을 만큼 야권에서 줄곧 주장해 왔으나 여당(당시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데다 최근 진경준 사태와 우병우 의혹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면서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더민주는 전날 이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추진 공조에 합의한 후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8

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범위에 판·검사,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 민주주의 회복 TF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지도부에 보고한 이후, 오는 21일 핵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당과 논의해 공동발의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 늦어도 다음 달에는 더민주와 함께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특히 새누리당에도 공수처 법안의

공동 발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 신설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며 새누리당에도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조만간 3당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우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추후 국회에서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직 정책위의장은 "권력이 강할수록 일벌백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추승용 의원은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야 "실효성 의문" vs 여 "北 대응 필요"

### 이들째 긴급현안질의...사드 배치 놓고 공방

여야는 20일 이틀째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하며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약한 데다 외교·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며 공세를 편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시간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음속의 5배 속도인 스커드미사일은 '개성-서울'(58km)의 도달시간이 34초, '무수단-서울'(200km)의 도달시간이 117초이며, 음속의 10배인 대포동미사일의 경우 개성-서울이 17초, 무수단-서울이 58초면 도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레이더 탐지 후 즉시 지휘체통을 통해 보고하고 이후 발사 명령과 발사 실행까지는 수 분이 소요될

것"이라며 "레이더로 탐지하고 그 순간 요격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요격용 방어무기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북한의 주요 공격무기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은 고도 40~60km로 날아 수도권에 도달하지만 사드의 요격고도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km인데다 요격거리 또한 200km에 불과해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야당은 사드 배치로 한국의 중국, 러시아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가 흔들릴 수 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할 경우 침체된 국내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의당 인터넷 방송 'ON 국민방송' 개국

국민의당이 20일 자체 인터넷 방송인 'ON국민방송'을 개국했다.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개국방송에는 지난 1월 창당발기인 대회 장면을 시작으로 4·13 총선 선거유세, 총선 개표 일 마포당사에 모여 환호하던 당선인들의 모습 등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영상물이 전파를 뒀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지지자 8명을 화상통화 도구인 '스카이프'로 현장 연결하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안철수 의원을 국가 원수로 만들어달라"며 머리 위에 손으로 하트를 그리기도 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부산에서 안 전 대표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라 믿는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방송 ON" 국민의당이 20일 자체 방송국인 'ON(온)국민방송'을 개국했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에 앞서 김영환 사무총장(왼쪽부터), 박지원 비대위원장, 김성직 정책위의장이 개국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대선·지방선거 일치 방안 검토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 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가 개헌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려면 대통령이나 의원의 임기 중 하나를 줄여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를 대선과 함께 치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나아가 정 의장은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선이 아니라는 데에는 다른 생각"이라며 "오히려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친박계는 '공황상태'

### 공천개입 파문에 최경환·서청원 대표 출마 좌절 당권 잡아 정권 재창출 무산 위기...대권주자도 인물난

새누리당 주류이자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가 있던 약재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계파의 소멸을 우려할 정도다.

당장 8·9 전당대회 전방이 암담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최대 '실력자'로 불렸던 4선의 최경환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론 때문에 지난 6일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는 평의원이었는데도 마치 제가 공천을 다 한 것처럼 매도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최 의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후 대안으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8

선) 의원이 출마 결심까지 굳혔으나 녹취록 파문이 일면서 불출마로 갑자기 선회하며 체면만 구했다. 김성희 전 의원에겐 지역구 이동을 종용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을 시사하는 지난 1월의 녹취록이 보도된 것이다. 녹취록은 서 의원이 경기 화성갑에서 현역 최다선 고지에 오르는 데 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까지 나섰다 내용이 담겼다. 현 수석도 경기 화성갑에 출마를 희망하던 김성희 전 의원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지역구 변경

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계 실제로 꼽히던 정치인들이 나란히 불명예를 떠안고 당권 도전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친박계는 폭탄을 맞은 형국이 됐다.

더욱이 이들을 대체할 마땅한 당권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누가 나서더라도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승산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20일 "집에 큰불이 났다. 불길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 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당권을 잡아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려 했지만 자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원내 친박계 대권 주자도 마땅치 않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이 거론되는 이유다. 친박계 입장에서 최경환·서청원 카드가 무산되고 나니 현재 후보 중 유일한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이나 중립 성향의 이주영 의원을 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4선의 홍문종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쌈강 다슬기 성업중!!**

쌈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쌈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화순읍내 소재수리

**아직까지 몰랐던 최고의 투자처!!!**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무엇일까?  
안전성 + 수익성 + 환금성의 3박자를 갖춘 부동산은 무엇일까?  
개인별 맞춤 투자로 토지투자의 성공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부동산투자 성공전략 무료세미나**

**강의 내용**

- ◆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준
- ◆ 대외 변수에 의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
- ◆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
- ◆ 토지 투자 유망지역과 투자포인트 공개
- ◆ 국가 정책이 토지개발에 미치는 영향
- ◆ 안전성을 확보한 노후자 투자 유망지 소개

**강사** ◆ 부동산 재테크 전문강사 ◆ 현지 실전 전문가

일시 : 7월 22일(금) 1부 : 오후 2시~4시 / 2부 : 오후 7시~9시  
장소 : 광주시 남구 월산로 154 가람빌딩 9층 (돌고개역)

**부동산토지재테크 상담소**  
예약전화 ☎ 062)576-7955